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한봉재¹ · 오준호¹ · 서지연¹ · 김태은² · 홍세영³ · 윤성익⁴ · 차웅석¹ · 김남일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¹의사학교실, ²한의철학과
³한의학사학과, ⁴사학과

The Formation and Text Compilation of 『HuaTaHyunMunNeJoDo』

Bong-Jae Han¹, Jun-Ho Oh¹, Ji-Yeun Seo¹, Tae-Yuen Kim², Sae-Young Hong³,
Seng-Yick Yun⁴, Wung-Seok Cha¹, Nam-Il Kim¹

Dept. of ¹Medical History, ²Oriental Medical philosophy, ³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⁴College of History,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HuaTaHyunMunNeJoDo』 is a medical literature dealing deeply with the theory of internal organs thought to be the core of theories in Chinese medic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orm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HuaTaHyunMunNeJoDo』.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HuaTaHyunMunNeJoDo』 and analyzed the organization of 『HuaTaHyunMunNeJoDo』 on the medical-historical points of view.

Results : As a result from studies. Main contents include 11 pieces of pictures about the positions of the region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well as the internal organs, in addition to descriptions in detail regarding each disease in the internal organs, problems occurred among them, obstinate diseases, etc.

Conclusions : A published book in Ming Dynasty and another transcribed by someone in Qing Dynasty as the xylographic books of this literature in China, which turned out to books referred considerably to the contents of YangGae's 『JonJinDo』, a famous doctor in Northern Song Dynasty in China. Moreover, the main contents of 『HuaTaHyunMunNeJoDo』 greatly affected the theories of the internal organs for the following generations as they were quoted in YiCheon's 『UiHakYipMun』 in Ming Dynasty in China.

Key words : HuaTaHyunMunNeJoDo, internal organs, viscera

·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
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4-3191,
E-mail: southkim@khu.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투고: 2006/11/24 · 심사: 2006/12/05 · 채택: 2006/12/07

I. 緒 論

한의학의 장부관은 음양오행을 기본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초는 『黃帝內經』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難經』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부관도 『黃帝內經』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본인이 연구주제로 삼은 『華陀玄門內照圖』^{①)}는 『黃帝內經』과 『難經』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헌으로 그 비슷한 제목이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나타나 있다. 李梴이 『醫學入門』을 집필할 당시 참고했던 서적을 설명해 놓은 ‘集例’를 보면 ‘臟腑’에 관한 부분에서 『素問』과 『難經』 및 『華陀內照』^{②)}, 『編註藥性』 등의 문헌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臟腑遵素難兼采華陀內照編註藥性等書)^{③)} 그리고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는 86종의 醫書 가운데 『內照圖』라는 書名이 실려 있다^{④)}.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華陀玄門內照圖』가 『華陀內照』나 『內照圖』와 같은 문헌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문헌인가에 관한 의문이 이 글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⑤)}.

본인이 연구주제로 삼은 『華陀玄門內照圖』는 제목으로 보아 華陀의 저작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책에 서술된 내용들은 한의학 이론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장육부의 生理와 病理 그리고 臟腑圖까지 깊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華陀內照』 혹은 『內照圖』라는 문헌은 李梴의 『醫學入門』의 臟腑總論에 많이 인용되었으며 『東醫寶鑑』

의 歷代醫方에서도 중요한 의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의서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1831년에 의사고시과목으로 채택되게 되면서 한국의 의학자들에게 있어서 『醫學入門』은 『東醫寶鑑』과 함께 중요한 의서로 자리매김 하였다. 『東醫寶鑑』이 조선의 의사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1600년 대 이후에는 의학이론은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제 임상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하는 풍토가 정착하게 되었을 정도로 『醫學入門』은 한국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⑥)}.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의학계가 『東醫寶鑑』과 함께 『醫學入門』을 주요 연구교재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⑥)}.

그래서 『華陀玄門內照圖』라는 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華陀內照』 혹은 『內照圖』라는 책이 『華陀玄門內照圖』라는 책과 일치하는지, 나아가 『華陀玄門內照圖』의 장부이론이 어떻게 『醫學入門』이나 『東醫寶鑑』에 인용되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본문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本 論

1. 華陀와 『華陀玄門內照圖』의 간행 시기 및 저자에 관하여

화타는 漢末 沛國醜(지금의 安徽省 亳縣)사람으로 본명은 敷, 字는 元化이다. 生死年月은 정

① 2卷 1책으로 총 86면이다. 11폭의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

② "『華陀內照圖』는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醫學入門』의 내용을 볼 때 『黃帝內經』 및 『難經』에 나온 것 이외의 커다란 이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같은 계통에 있는 의서로 여겨진다."

③ 이 책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 경위를 잠깐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희대학교에서 의사학을 전공한 김대형 박사가 박사논문연구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道藏精華』에서 『華陀玄門內照圖』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리고 원본을 복사해 두었다가 차응석 교수에게 전달하였고, 차응석 교수는 평소 『醫學入門』의 臟腑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이 책을 입수하게 되어 본인에게 연구를 일임하게 된 것임을 밝힌다.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확히 알 수가 없으며 그는 100살의 나이에도 오히려 壯年의 용모가 있었다(年且百歲而猶有壯容)고 하였으니, 대략 A.D. 2세기 초에 태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後漢書』와 『三國志·本傳』의 기재에 의거하면 五經과 養性術을 통달하고 處方과 脈法에 정통하였으며 道引術에 능했다고 전해진다. 沛相인 陳珪가 일찍이 그를 孝廉으로 천거했고, 太尉인 黃琬도 그를 불러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名利에 담백했음을 볼 수 있고, 한때 曹操가 그를 불러 병을 보게 하고 侍醫가 되기를 강요하였으나 妻子가 병이 있다는 핑계로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차 오기를 재촉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曹操가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니 부인의 병이 거짓임이 발견되어 곧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고 마침내 살해하였다고 전해진다.⁷⁾ 그는 麻沸散을 사용하여 마취시킨 후 개복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심신수련법과 섭생에도 뛰어나 5가지 동물의 모습을 본떠 일종의 체조인 五禽戲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저서에 『華陀內事』, 『華陀觀形察色并三部脈經方』, 『華陀枕中灸刺經』, 『華陀方』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 그의 門人 吳普는 『寒溫五味本草』 1권을 저술하였고 李當之는 『神農本經』을 수정하였다.³⁾

華陀의 의료사적에 관하여 현존하는 자료는 治病例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三國志』중에 그의 證治病例가 16가지, 『甲乙經·自序』중에 1가지, 『後漢書·華陀傳』注引 華陀別傳에 5가지, 『太平廣記』에 4가지, 모두 26례가 기록되어 있다.⁷⁾ 이러한 기재를 살펴보면, 탕약에 넣는 약물이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았고, 침을 놓아야 한다고 해도 불과 한두 곳에만 침을 놓았다고 한다. 또, 病邪가 체내의 깊은 곳에 맺히고 쌓여 있어서 침과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여 환부를 베어내야 할 때에는 麻沸散을 복용하게 하여 마취

시킨 후 개복수술을 했다고 한다. 醫案속에는 임신 6개월 된 부인을 진맥하고 死産여부를 판단하여 치료를 했고, 복통이 십여 년이 되어도 낫지 않는 환자를 진찰하고 脾臟이 절반이나 썩었다고 하여 開腹해보니 과연 썩어 있어서 환부를 도려내어 치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華陀는 범인의 눈으로 볼 때는 환자의 몸속 소장육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의술로 병자를 치료하여 名醫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華陀玄門內照圖』의 내용이 인체의 내부에 있는 장부와 경락에 관한 서술이며 內照, 즉 인체의 내부를 비취본다는 의미에서 華陀라는 명의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책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明代 嘉靖年間의 刻本, 清代 筆寫本, 康熙 戊申年本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자료로 채택한 책은 대만의 자유출판사에서 『道藏精華』를 출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누가 언제 쓴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다.

“出聖入神의 경지에 이른 의술을 가진 華陀의 의서가 전해진 바가 없어서 이 책의 저자가 華陀의 책을 구하던 중에 醫統書目を 일람하다가 ‘內照經(圖)一編’을 발견하고 華陀가 직접 저술한 의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후 嘉靖(1522-1566)년간에 太醫院의 周興國이 손으로 베껴온 것을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손자인 道州先生에게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 당시 파손이 심해 알아볼 수 없던 것을 약간의 교정을 거쳐 이에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이 책은 원래 4권이었는데 뒷부분은 郭氏와 禹氏가 지은 것으로 화타의 원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다. 서문의 관지는 “康熙戊申年 陽生日 吳中 後學 王璠荅友氏”라고 되어 있

다. 본문의 첫머리에 “漢 華佗 元化氏編集”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에는 본문 중에 11쪽의 경락 및 장부에 관련된 그림이 실려 있다.

그리고 『內照圖』라는 이름이 역대 의서에 인용된 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內照圖』는 역대의가의 의서에 여러 군데 인용되었다. ‘華佗內照’ 혹은 ‘內照圖’라는 이름으로 역대의서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명칭이 하나의 동일 의서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華佗內照』라는 이름으로 인용된 예로서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漢魏 시대로 내려오며 名醫가 많으나 張機 華佗의 무리가 비로소 古學으로 인하여 新說을 첨부하고 藥品 三百六十五種을 편찬하니 이것을 『神農本經』 『華佗內照』라 하고, 門人 吳普는 『寒溫五味本草』 一卷을 撰하였고 李當之가 『神農本經』을 修한 것이다.”(漢魏以來 名醫益衆 張 機 華佗輩 始因古學 附以新說 編藥品三百六十五種 謂之神農本經華佗內照 門人吳普撰寒溫五味本草一卷李當之修神農本經)^④

두 번째로는 『東醫寶鑑』에 『內照圖』라는 이름으로 인용되었다. 『東醫寶鑑·集例』에서 『內照圖』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集例의 歷代醫方^⑤에 관한 내용 중에 13번째에 해당하는 책으로 ‘內照圖後漢華佗의著字元化’이라 하여 後漢 華佗의 저작으로 字는 元化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1790년 조선에서 간행된 『廣濟秘笈』^⑥에서 동의보감과 마찬가지로 『內照圖』라는 이름으로 인용되었다. 이 의서의 저자인 李景華가 『廣濟秘笈』을 저술할 때 인용한 책 목록을

‘引據諸書’라 하여 밝혀놓았는데, 이에는 『難經』, 『倉公方』, 『金匱玉函經』, 『甲乙經』등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있다. 여기서 『內照圖』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內照圖華佗著苦其太簡宋楊吉老增補爲一卷”이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內照圖』는 華佗가 저술하였는데 너무 간략하여 宋의 楊吉老가 보충해서 一卷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楊吉老는 바로 宋代의 名醫 楊介^⑦를 말한다. 이 내용은 『內照圖』라는 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楊吉老가 보충해서 一卷을 지었다는 말은 李景華가 『廣濟秘笈』을 저술했을 당시에는 이미 『內照圖』가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 楊吉老가 보충했던 것을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보충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存眞圖’에서 『華佗玄門內照圖』까지

1) 臟象學說과 臟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華佗玄門內照圖』에 실린 장부도의 유래와 이해를 위해 한의학의 장부학설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한의학의 장부학설은 장부의 형태와 생리 기능 및 병리변화,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형태와 기능은 역사적으로 해부학적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는데, 초기의 장부학설은 주로 고대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체에 대한 해부가 장부학설을 발생하게 하고 발전하

④ 華佗의 제자로는 吳普, 樊阿, 李當之 등이 있었는데, 모두 매우 유명하였다. 樊阿는 침술에 능하였고, 吳普와 李當之는 모두 본초에 관한 저작이 있다.

⑤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총 86개인데, 이것은 醫學史에 대하여 책으로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조선 正祖 때의 평안도 의사 李景華가 濟世救民할 목적으로 지은 醫書

⑦ 字는 吉老이고 泗州 사람이며 의술로 사방에 이름을 날렸고 저서로 『存眞圖』가 있다.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게 하는 데 객관적인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옛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죽여 제물로 쓰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해부학적 지식이 축적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儀禮』에는 수많은 가축의 내장이나 신체조직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절개 방법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지식은 ‘사물의 이름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인체 해부지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시신을 관찰하고 측량한 경험, 인체에 대한 관찰 경험 등을 토대로 옛 사람들이 해부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측면으로 꼽을 수 있다⁹⁾. 이러한 내용은 『史記』, 『呂氏春秋』, 『靈樞』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史記·扁鵲列傳』을 보면, “예전에 俞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오장의 혈위에 따라 피부를 열고 근육을 자르고 맥을 소통시키며 힘줄을 묶고 골수와 뇌를 붙잡아 황막을 잡아 가르며 腸胃와 五臟을 세척했다” 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呂氏春秋·貴直論』에는 “商나라의 주왕은 걸어 다닌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 골수를 보았고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보았으며 비간(比干)을 죽여 그 심방을 보았다.” 는 구절이 있다. 또한 『靈樞·經水』에는 “8척인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서 그 길이를 재고 죽은 후에는 해부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따라서 이러한 고대의 임상의료경험, 해부지식에서 유래하여 『黃帝內經』에서와 같은 장부학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黃帝內經』의 저술 연대를 戰國時代 및 前漢代로 보면 대략 1세기경에 이러한 장부학설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내용은 더 늦은 시기에 확립되었다¹¹⁾.

唐代에 이르면 걸출한 의학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孫思邈이다. 孫思邈은 많은 질환들을 생리·병리적 특성과 관련시켜 臟腑에 속한 병으로 분류하였으며, 전 시대의 이론들을 연구하여 모든 인체의 질병을 장부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변증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부는 음양오행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므로, 五行歸類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임상표현 및 생리병리변화를 臟腑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前時代의 의서에서 제시한 脈診에 관한 내용 중 臟腑와 연계된 내용을 진단과 병증에 도입하였고, 인체의 경맥유주와 臟腑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인체의 국소반응까지도 장부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¹¹⁾.

이후 宋代 名醫인 錢乙의 五臟辨證에 대한 학술사상은 장부이론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錢乙은 『黃帝內經』의 五臟五行의 이론에 근거하여 오장을 버리로 삼는 소아변증방법을 총괄하였다. 그의 五臟辨證 및 五臟補瀉의 처방은 지금까지도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장부이론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것은 金元四大家에 이르러서이다. 劉完素, 張元素, 李杲, 張從正, 朱震亨 등 많은 의가들은 각기 主火論, 臟腑辨證說, 脾胃學說 및 攻邪學說과 相火論을 제창하여 한의학에서의 장부이론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 중에서도 張元素는 이전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여 여기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시켜 장부의 변증과 치료에 계통적인 이론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한의학의 臟腑病機와 證治理論이 발전하게 되었다¹¹⁾.

그러면 여기서 한의학의 역대 의서에 나타난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묘사한 그림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자.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림들을 토대로 대별해보면 크게 臟腑圖와 明堂圖로 구분할

⑨ “若夫八尺之士，皮肉在此，外可度量切循而得之，其死可解剖而視之”

수 있을 것이다. 臟腑圖는 말 그대로 인체의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며, 明堂圖는 인체의 경맥과 경혈을 나타낸 그림이다. 臟腑圖에는 인체의 正面과 背面을 그린 正伏人臟腑圖와 인체의 측면을 그린 側人臟腑圖가 있다. 이러한 臟腑圖는 모두 臟腑總圖로서 인체 내의 모든 臟腑를 묘사한 그림이다. 그리고 臟腑分圖라 하여 하나하나의 臟腑를 각각 그린 그림도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 臟腑圖로는 ‘烟夢子內境圖, 歐希范五臟圖, 存眞圖와 胡愔의 五臟六腑圖’^⑨ 등이 있다. 宋代 이후의 臟腑圖의 正面, 背面 그림은 대개 직간접적으로 北宋의 名醫였던 楊介의 ‘存眞圖’에 근원한다. 그래서 그림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으며 유사한 경우가 많다. 烟夢子內境圖는 『道藏』에 실려 있는데, 原圖는 正面, 背面, 左側, 右側 등 네 쪽의 臟腑總圖가 있고 그 중 正面圖와 背面圖는 인체장부의 실제형상을 그린 그림이다. 이 二圖는 후에 楊介 ‘存眞圖’의 중요한 참고도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宋代 李駟의 『黃帝八十一難經句解』에도 인용되었다.

側人臟腑圖는 ‘內景全圖’, ‘內景圖’라고 일컬어지며 『東醫寶鑑』에 실린 身形臟腑圖가 전형적인 側人臟腑圖에 속한다. 또한 明代 高武의 『鍼灸聚英』, 李梴의 『醫學入門』, 張介賓의 『類經圖翼』 등에도 이러한 側人臟腑圖가 실려 있다. 臟腑圖의 세부내용은 장부이론이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 시대를 흐르면서 조금씩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命門이나 心包, 三焦 등의 이론을 각 醫家가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臟腑圖에 이러한 장부그림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華陀玄門內照圖』 역

시 본문 중에 11쪽의 경락 및 장부관련 그림이 실려 있다. 이런 그림을 보면 해부도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인체의 기능을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나아가 건강을 증진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학문을 의학이라고 본다면, 기능의 이해를 위한 구조의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부학은 이러한 인체의 구조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과거의 醫家들이 시체를 해부하여 인체의 기능, 특히 오장육부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 노력이 이러한 臟腑圖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부를 통해 醫家에서 추구한 것은 『內經』이나 『難經』의 의학적 이론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었으며, 道家에서는 內照 혹은 內觀이라는 수양법을 통해 눈이 아닌 心으로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지와 그 결과를 道家의 內景圖에 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醫家중에는 道家이거나 道家적 지식을 갖춘 의사도 많았다. 李時珍은 이르기를 “內景의 隧道는 오직 返觀者만이 능히 察知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장부해부방면에 있어서 道家 및 道家의 배경을 갖춘 저명한 의가들이 많은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가령 비장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묘사는 醫家보다도 더욱 명확하여 醫籍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사실상 脾胃를 논한 것으로 유명한 금원의학의 대가인 李東垣이 脾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묘사가 道家의 문헌으로부터 기록한 것이다.

다만, 서양의 의학처럼 해부학이 철저하게 발

⑨ 여기에서 ‘烟夢子內境圖’와 胡愔의 ‘五臟六腑圖’는 道家의 內景圖에 해당하며 특히 胡愔의 五臟六腑圖에 관해서는 김대형의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歐希范五臟圖’와 ‘存眞圖’는 원래의 문헌은 실전되었으나 이후의 다른 문헌에 인용되어 전함으로써 그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판제

달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 중시되지 못한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그 연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움직이는 생명력인 氣를 다룬 학문에서는 구조 자체의 논의를 넘어선 구조내부의 상호작용 혹은 역학관계가 인체의 생리와 병리 등을 이해하는 데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華陀玄門內照圖』도 물론이려니와 한의학의 문헌이 『道藏精華』라는 도가서적에 포함된 이유도 호흡이나 의념을 통한 수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였기에 한의학의 이론을 부단히 채용하였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2) 楊介와 『存眞環中圖』

楊介는 일명 吉老라고도 하고, 北宋의 名醫로 泗州 사람이며 의술로 사방에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崇寧시기(1102~1106년)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인체해부 도록을 만든 것에 근거하고 政和 2년(1112년)에 ‘烟夢子內境圖’와 ‘歐希範五臟圖’^⑩를 교정하여 ‘存眞圖’를 저작하였다. 그리고 12경맥의 그림과 글을 증보시켜 이를 합쳐서 『存眞環中圖』^⑪를 만들었다. 이 책은 다음 해인 1113년에 간행하였다. ‘存眞’이라 하는 것은 장부의 그림이고, ‘環中’이라 하는 것은 12경맥의 그림이다. 송대 이후 의적 속에 있는 臟腑圖는 대부분 楊介의 『存眞圖』를 직접 혹은 간접

으로 채용하였으나 그 가운데 『環中圖』는 자료가 결핍되어 중국학자가 언급한 것이 드물다. 『存眞環中圖』의 성서 연대에 대해 살펴보면, 幻雲^⑫이 주석한 『史記』에서 인용한 楊介의 『存眞圖』서문에서 이를 쓴 해가 ‘政和二年’(1112년)이고, 賈偉節이 『存眞環中圖』서문을 쓴 해가 ‘政和三年’(1113년)으로 되어 있다.

『存眞環中圖』의 구성은 幻雲의 『扁鵲倉公列傳』주석에서 인용한 글을 보면 ‘存眞圖’와 ‘環中圖’를 따로따로 인용하여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楊介의 『存眞環中圖』가 ‘存眞圖’와 ‘環中圖’의 두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存眞環中圖』와 『華陀玄門內照圖』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廣濟秘笈』의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저자인 이경화는 『內照圖』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內照圖華佗著其太簡宋楊吉老增補爲一卷” 여기서 주목할 것은 “『內照圖』는 華佗가 저술하였는데 너무 간략하여 宋의 楊吉老가 보충해서 一卷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內照圖』라는 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도 『內照圖』를 華佗가 저술하였다고 했는데 이경화는 비록 『內照圖』는 華佗가 지었으나 楊吉老가 이를 보충해서 지었다고

⑩ 書名. 宋代 吳簡(一說 靈簡)이 編 했음. 北宋 慶歷間(1022~1063)에 編者는 有關人과 함께 50구의 시체를 해부하며 이들 시체의 喉部, 胸복강장부에 대하여 상세히 비교 관찰하고 繪工 宋景에게 도보를 그리게 하였다. 해부를 당한 대상은 모두 복송에 반항하다 체포 살해된 사람들이었으며, 歐希範은 그들의 首領이었다. 原書는 이미 佚失되었음.

⑪ 『存眞環中圖』는 높은 학술적인 가치와 특수한 사학적 의의로 인해 일찍이 일본과 중국의 의사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연구는 처음부터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고 저명한 학자에게 책임을 맡긴 중대한 과제였다.

⑫ 幻雲(1460~1523). 일본 鎌倉시대의 僧醫. 송판 『史記』를 상세히 주석함. 특히 「扁鵲倉公列傳」을 주해할 때 대량의 중국 의서를 직접 인용하여 수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중국에서 실전된 중요한 의적으로서, 그 문헌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환운이 주석한 문자는 약 9만 자로 현재 일본 오리엔트출판사에서 영인한 『동양의학선본총서(東洋醫學善本叢書)』제28권에 실려 있다.

한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인 『華陀玄門內照圖』의 본문내용에서 우리의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제공한다. 본문에 실린 장부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黃帝書曰地氣道於噎 噎咽也 以今藏象 咽在喉之後 合古書爲是於歐本則非”¹⁵⁾ 이 문장은 咽과 喉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以今藏象’에서의 藏象은 『華陀玄門內照圖』의 해부도를 가리킨다. ‘古書’는 어떤 서적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歐本’은 바로 ‘歐希範五臟圖’를 가리키는 것이다. 咽이 喉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옳은데 ‘歐希範五臟圖’에서는 잘못 그려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리를 하자면, 楊介는 ‘烟夢子內境圖’와 ‘歐希範五臟圖’를 교정하여 ‘存眞圖’를 저작하였다. 그리고 이경화가 언급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楊介는 『內照圖』를 보충하여 一卷을 지었다. 또한 『華陀玄門內照圖』의 저자는 이 책을 지을 때 ‘歐希範五臟圖’를 참고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楊介가 지은 一卷이 혹시 『華陀玄門內照圖』가 아닐까?

이에 대한 답을 黃龍祥은 다음과 같이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었다. “현존하는 『華陀玄門內照圖』는 漢代 華陀의 저작은 아니지만, 그것의 가장 큰 문헌적 가치는 북송 名醫 楊介의 『存眞環中圖』속의 ‘存眞圖’부분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찰을 통하여 이 책은 楊介의 自序와 ‘歐希範五臟圖’ 및 그 문자의 해설을 제외하곤 『存眞圖』의 모든 그림과 글을 인용하여 수록하였고, 또한 다시 편찬하거나 개편하지 않고 원서의 편차에 따라 직접 원문을 초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存眞圖』의 전본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양개의 『存眞環中圖』전

반부인 『存眞圖』문자를 편집한 온전한 자료이다.”¹⁴⁾ 결국, 『華陀玄門內照圖』의 대부분의 내용은 楊介가 서술한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內照圖』는 華陀의 저작이다.
- ② 楊介는 『存眞圖』를 지었으며 또한, 『內照圖』를 보충하여 一卷을 지었다. 그리고, 두 서적은 失傳하였다.
- ③ 『華陀玄門內照圖』는 『存眞圖』의 전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편집한 온전한 자료이다.
- ④ 따라서 『華陀玄門內照圖』는 『內照圖』의 내용과 『存眞圖』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서적으로 볼 수 있다.

3. 『華陀玄門內照圖』의 본문편제

1) ‘玄門’과 ‘內照’의 의미

‘玄門’은 기공학이나 도교에서 쓰이는 고유명사로 중국기공사전에서는 道 혹은 氣功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¹⁶⁾. 그리고 도교대사전에서는 道敎를 가리킨다고 보았다¹⁷⁾.

‘內照’는 內景, 內視, 內觀, 凝神 이라고도 하며 사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첫째, 장부의 생리기능, 병리변화의 외적표현의 상호반영관계를 가리킨다. 둘째, 사유활동을 內向하여 意로써 장부조직을 관찰하는 것을 가리킨다¹⁶⁾. 눈으로 보는 것은 본래 外觀을 향하는 것인데, 內視는 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깨닫는 것을 말한다. 內視는 道를 터득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太平經』에서는 “眩目內視하여 마음을 안으로 다스리며 陰明反洞하여 太陽에 스며든다. 그

⑬ 『魏書 · 禮志』에서 “致意玄文 儒業文風”이라 하여 道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世說新語』에서는 “時有入心處 便覺尺咫玄門”이라 하여 氣功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정신을 집중하여 기공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리하여 안에서 道를 터득한다. 마치 火로써 안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고 했다¹⁵⁾.

『黃庭經·梁丘子注釋』에서는 “內는 心이고 景은 象이다. 外景은 日月星辰의 象을 말함이고, 內景은 血肉, 筋肉, 臟腑의 象을 말함이다. 心은 몸안에 있어 일체의 象을 관찰한다. 고로 內景이라 했다”고 하였다¹⁶⁾.

『性命圭旨全書·元集』에 보면 內照圖가 나온다. 內照란 功法 수련중 入靜 상태에서 자신의 內臟을 관찰하는 것이다. 內照圖중 形象地는 五臟六腑 內臟의 형태를 그린 것인데 모두 內觀時의 상태이다¹⁶⁾.

2) 『華陀玄門內照圖』의 본문편제

『華陀玄門內照圖』는 『道藏精華』 第十四集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의 표지에는 ‘華陀玄門內照圖’라고 되어 있다. 책의 머리에 서문에는 ‘華先生內照圖序’라고 하였으며 서문 다음에 나오는 목차에는 ‘玄門脉訣內照圖卷上目’이라 하여 그 정확한 명칭을 ‘玄門脉訣內照圖’라 하였다. 따라서 책의 표지에는 華陀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이름을 지었으나 정확한 책의 제목은 ‘玄門脉訣內照圖’라고 명명함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第一明畫圖之象, 第二明當藏之病, 第三明五藏相入, 第四明藏府相入, 第五明藏府應藥, 第六明藏腑之成敗로 나뉘어 있으며 주로 오장육부의 생리, 병리,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의 첫머리에서는 오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오장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맥의 허실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藥, 鍼, 灸法의 적절한 활용과 年齡, 肥瘦 등 환자의 상태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第一明畫圖之象」에서는 인체의 내부 구조에 대하여

그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肺側, 心氣, 脾胃包系 등의 용어는 『華陀玄門內照圖』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항목은 十二經脉圖, 經脉氣血, 經脉滋育, 四時經脉病, 陰海陽海二圖, 腎虛論,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肺側, 心氣, 氣海隔膜, 脾胃包系, 大腸小腸, 髓, 十二經脉直訣, 左右手脉象, 七表八裏, 四時平脈 등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十二經脉直訣’부터는 이 책의 下卷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十二經脉直訣’부터 左右手脉象, 七表八裏, 四時平脈 및 當藏之病的 從心氣와 從肝氣까지의 내용은 책의 첫머리 목차에는 나와 있으나 본문은 산실되었다. 「第一明畫圖之象」에는 십이경맥을 十二支, 十二臟腑, 十二水와 연결시켜 그린 원도표인 ‘十二經脈圖’와 任督脉과 내부 장기를 그린 그림 등 11쪽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第二明當藏之病」은 從心起, 從肝起, 從肺起, 從脾起, 從腎起 등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해당 장기의 五行歸類와 함께 주요 맥상과 증상을 기술하였다. 여기의 내용은 주로 한 臟에서 風, 氣, 熱, 冷, 虛라는 邪氣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것이다.

「第三明五藏相入」은 글의 내용으로 볼 때 ‘五臟病邪 自相互入’의 준말로 볼 수 있는데 즉, 한 臟에 침입한 邪氣가 다른 臟으로 相入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邪氣는 風, 氣, 熱, 冷, 虛의 邪氣를 말한다. 주요 항목은 肝病入心, 肺病入心, 心病入肺, 腎病入心, 心病入腎, 脾病入心, 心病入脾, 腎病入脾, 肝病入脾, 腎病入肺, 肺病入肝, 脾病入肺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의 발생을 오장상호 간의 역학관계로 설명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第四明藏府相入」은 표리관계에 있는 장부간에 사기가 침입하여 일어나는 증상을 설명하

<표 1> 『華陀玄門內照圖』의 目次

卷	第名	內容
卷上	第一明畫圖之上	十二經脉圖 經脈氣血 經脈滋育 四時經脈病 陰海陽海二圖 腎虛論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肺側 心氣 氣海膈膜 脾胃包系 大腸小腸 命門 髓
	第二明當藏之病	十二經脈直訣 左右手脉象 七表八裏 四時平脈 從心起 從肝起 從肺起 從脾起 從腎起
卷下	第三明五藏相入	肝病入心 肺病入心 心病入肺 腎病入心 心病入腎 脾病入心 心病入脾 腎病入脾 肝病入脾 腎病入肺 肺病入肝 脾病入肺
	第四明臟腑相入	脾病入胃 腎病入膀胱 心病入小腸 肺病入大腸 肝病入膽
	第五明臟腑應藥	心風服疎冷藥 心氣服疎熱藥 心熱服君冷藥 心冷服使疎藥 心虛服君藥 肝風服臣藥 肝氣服使藥 肝熱服冷藥 肝冷服熱藥 肝虛服溫補藥 肝風服疎冷藥 肺氣服疎藥 肺熱服疎藥 肺冷服平藥 肺虛服溫冷藥 肺風服疎藥 肺氣服使藥 肺熱服疎冷藥 肺冷服疎熱藥 肺虛服溫補藥 腎風服熱藥 腎氣服鹹熱藥 腎熱服疎冷藥 腎冷服毒熱藥 腎虛服熱補藥 藥性無毒炮製 有毒炮製 湯液煎造
	第六明臟腑成敗	五藏死 五體敗 五證死 五色死 五聲死 五體死 五竭 五傷死 五不稱脉 五視死 錯簡 色聲心序

였다. 肺病入胃, 腎病入膀胱, 心病入小腸, 肺病入大臟, 肝病入膽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의 발생을 오장과 육부 상호간의 역학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第五明藏府應藥名」은 五臟의 질환에 대하여 風, 氣, 熱, 虛, 冷으로 분류하여 각각 쓸 수 있는 본초약재를 소개하였고 구체적으로 心風服疎冷藥, 心氣服疎熱藥, 心熱服君冷藥, 心冷服使疎藥, 心虛服君藥, 肝風服臣藥, 肝氣服使藥, 肝熱服冷藥, 肝冷服熱藥, 肝虛服溫補藥, 肝風服疎冷藥, 肺氣服疎藥, 肺熱服疎藥, 肺冷服平藥, 肺虛服溫冷藥, 肺風服疎藥, 肺氣服使藥, 肺熱服疎冷藥, 肺冷服疎熱藥, 肺虛服溫補藥, 腎風服熱藥, 肺氣服鹹熱藥, 腎熱服疎冷藥, 腎冷服毒熱藥, 腎虛服熱補藥 등이다. 또한 藥性無毒炮製, 有毒炮製, 湯液煎造 등 약재의 수처와 법제 및 복약법 등에 관하여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독약, 포제, 탕법 등 본초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첨부하였다.

마지막으로 「第六明藏府之成敗」는 五藏死, 五體敗, 五證死, 五色死, 五聲死, 五體死, 五竭, 五傷死, 五不稱脈, 五視死, 錯簡, 色聲心序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기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 오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華陀玄門內照圖』에 실린 모든 내용은 세부적인 목차는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장부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치료약물 및 난치병, 그리고 장부의 개개 해부도와 연계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였다. 비록, 그림과 글의 대부분이 楊介의 『存眞圖』부분을 인용하였다고 하나, 후학들을 위해 장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Ⅲ. 結 論

1. 『華陀玄門內照圖』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장부이론에 대해 정리한 의서로서 특히, 장부병리 및 치료는 風, 氣, 熱, 冷, 虛 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2. 『華陀玄門內照圖』에 실린 그림은 총 11圖로서 3개의 經脈圖와 2개의 臟腑總圖 및 6개의 臟腑分圖이다.
3. 『華陀玄門內照圖』는 漢代 華陀의 저작은 아니지만, 그것의 가장 큰 문헌적 가치는 北宋의 名醫 楊介의 『存眞環中圖』속의 ‘存眞圖’ 부분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4. 『玄門脉訣內照圖』는 해부도를 포함하여 장부의 기본이론과 해부학적 지식, 진단과 약물 및 침구치료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장부를 중심으로 설명한 의서이며 그 기본이론은 『內經』과 『難經』의 장부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장부의 그림은 『存眞圖』의 것을 인용하여 각 장부의 구조와 연계를 설명하였다.

參 考 文 獻

1. 文山遜叟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 第十四集之二』. 臺北：自由出版社印行. 1976：1-84.
2.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참고의서 분석과 편제연구. 韓國醫史學會誌. 12(2)：61.
3.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大星文化社. 1990：19, 157-8.
4.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94：69.
5. 金永勳.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성보사. 2001：475-6.
6. 車雄碩.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醫學入門』을 중심으로.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59.
7. 홍원식 편저.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1984：97, 98.
8.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韓醫學通史. 고양시：대성의학사. 2006：340.
9. 余自漢. 황제 내경의 기원. 서울：一中社. 2003：201-4.
10.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291.
1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시：대성의학사. 2006：82-4, 137-8, 145.
12. 김남일, 신동원, 여인석.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1999：19-20.
1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의사 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150.
14.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法仁文化社. 2005：104, 236-7.
15. 文山遜叟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 第十四集之二 · 華陀玄門內照圖』臺北：自由出版社印行. 1976：25.
16. 呂光榮. 中國氣功辭典.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88：99, 100, 168.
17. 중국도교협회. 도교대사전. 華夏出版社. 1993：408.
18. 伍守陽. 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 서울：서림문화사. 1994：238.